

# 2008 새해설계 ⑨

## (사)성군관여성유도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박명자

### 학생들 대상 예절교육 봉사활동 나서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절교육 필요

(사)성군관여성유도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명자)는 1993년 창립 때 현재 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어름방학을 이용해 각급 학교에 나가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성년의 날을 비롯해 유럽에서 실시하는 연중행사에 적극 봉사하고 있다.

특히 각 읍면동별로 조직돼 있는 (사)성군관여성유도회 포천시지부 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자(사진) 지부장은 최근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은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주 좋아했다며 앞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절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 있는 성군관에서 가서 공부를 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성군관을 찾아 전통예법을 익혀 회원들과 함께 지부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며 다른 회원들에게도 권유해 올바른 예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포천시가 여성유도회의 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예절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시민들도 여성유도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유도 화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멋이 나고 물어본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더욱 많은 여성들이 여성유도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에는 학교 제한에는 열심도 못하게 했지만 최근에는 자유롭게 사당출입도 가능하며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통과 선비의 고장이라고 일컫지만 실제 선비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며 앞으로는 예절이 강조



포천시가 도래하게 되어 여성유도회의 활동도 큰 기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성군관여성유도회 포천시지부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명자 ▶부회장 성영임 ▶총무부장 박명자 ▶교과부장 박경자 ▶조직부장 정중숙 ▶감사 이상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기사제보

### 환경 보호

제가 성년에 살다가 여기 포천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3년 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엔 낯선 곳에 와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지리도 몰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곳도 참 좋은 곳이나 하고 지냅니다. 처음 이사 올 때 살았던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선단동에 있는 행복마을이라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저

의 빌라 뒤쪽에는 아주 작은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악취와 쓰레기로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나마 물이 깨끗해서 냄새는 별로 없었던 저의 빌라 위쪽에 공장들이 많은 탓에 오염된 물들이 그 작은 개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폐수를 버려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빌라에 제가 한번은

시청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뿐이고 지금도 예전과 같이 쓰레기며 악취로 참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운 여름이 오겠지요? 그럼 또 그렇게 걱정이네요. 어떻게 좀 안될까요?

시청에 전화를 해도 어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제보를 해봅니다. 부디 한번 더 살펴서 지역 주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양근영(포천시 선단동)

경기도지방통계청 포천출장소가 4월1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지방통계청은 새정부 조직개편에 의거 농림부의 농업통계업무와 해양수산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를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포천출장소(소장 정달막)는 포천시 신읍동 225-9번지 2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포천출장소는 포천시와 연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광공업실태조사, 농업생산통계조사, 작물재배면적조사, 가축통계조사, 경기면적 조사 등 국가 기본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포천출장소 개소로 지역에 정착하고 신속한 통계자료를 생산 지역주민 기업 및 각종기관의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통계수요 부응 여건제공 기대

#### 경기도지방통계청 포천출장소 개소



경기도지방통계청은 새정부 조직개편에 의거 농림부의 농업통계업무와 해양수산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를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 공무원 잠수동호회, 한탄강 수중 정화활동

#### 22일 페타이어 등 쓰레기 1톤 수거

포천시공무원 잠수동호회(회장 오각균)는 4월22일 한탄강(영북면 자일리 화적연)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한탄강 수중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수거활동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버려진 페타이어, 페그물, 영농페기물 등 약 1톤의 수중 쓰레기를

수거했다.

동호회 관계자는 "수중정화 활동을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할 뿐 아니라 주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명분이 더해져 바쁜 일과 중에 수중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돼 큰 보람을 느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공무원 잠수동호회는 4월22일 한탄강(영북면 자일리 화적연)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한탄강 수중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 노인 위한 장수사진 무료제작 배부

#### 영종의용소방대, 지역의 독거노인 등 위해

영종의용소방대는 4월18일 영종면교육문화센터에서 영종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영종면사무소 후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장수사

진 무료제작 배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영종의용소방대(대장 배상균) 회원 소방관이 지역의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



영종의용소방대는 4월18일 영종면교육문화센터에서 영종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영종면사무소 후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장수사진 무료제작 배부 행사를 개최했다.

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영종면 이장협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문화센터까지 수송문제를 담당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돋보이기 위한 치장(의류 및 화장품)을 담당했으며, 의용소방대는 행사의 주관과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등 주민

모두의 참여를 통하여 따뜻한 노인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영종119파견소에 근무하는 최원근 소방관은 어제 적당히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노인들의 행사를 위하여 사진촬영에 도움을 주어 사진 찍는 소방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詩

#### 빈집

한때,  
그는 일곱 남매의 아버지였다  
남은 자전거 체인을 고치며  
명절이면 소고기 한 근 끊는 게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북에 두고 온 부모형제가 그리운 날이면  
막걸리 들이키듯 절망을 들이부어  
그가 들이마신 공기는  
폐부 깊숙한 울림으로  
다시 토해 낼 때까지  
자신 속에 가두어야 했다  
겉으로 지켜오던  
영토는 그가 사라지면서  
봄날 꽃잎에 지듯 모두 사라져  
비어있는 뜰엔  
그가 심은 배꽃이 보름달  
흔레를 내고 있었다.



김은희  
주부영(가사)인문교육진흥원  
인문교육지원팀 팀장

### 내 고장 文化財 지킴이 活動

#### 한화리조트/산정호수, 반월성지 환경정화

한화리조트/산정호수(본부장 조용하)는 관내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잡초제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문화재 소개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온 이 활동은 문화재청과 한화리조트(주)가 민족의 문화유산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가꾸고, 즐기고, 지켜내어 다음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공동의



한화리조트/산정호수는 관내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잡초제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문화재 소개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12개 한화리조트 사업장별로 문화재를 선정해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한화리조트/산정호수는 4월2일 포천향교를 찾아가 대성전과 명륜당의 잡초를 제거했고 4월22일에는 반월성지 지킴이 활동으로 성터 외곽 및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서성선생묘(경기도 기념물 제35호), 인흥근묘·신도비(향토유적 제28호)의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1월부터 반월성지(사적 제403호)와 포천향교(문화재자료 제16호)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화리조트/산정호수 사회공헌팀 조미희씨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특별한 기술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는 의식을 일깨워 주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의 뿌리를 찾고 지키는데 의의가 있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웰빙

#### 부사의(不生意)

#### 역경(逆境)과 역풍(逆風) 48

'역경(逆境)'을 이기고 성공했다는 말을 주위에서 흔히 듣는다. 역경이란 어려운 환경(逆境)을 말하는 것이다.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 어려운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가난과 역경 속에서 일어나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입지전적(立志傳)인 인물(人物)이라고 말한다. 입지전적이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말이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뜻을 세우 일어섰다는 말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무언가 달라진 한층 다르다. 첫째는 무엇을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意志)가 있다. 무엇을 이루어보겠다는 강력한 집념(執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입지(立志)이다. 그들에게 꿈이 있고 희망(希望)이 있고 비전(vision)이 있다.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을 위해 매진(邁進)한다. 한눈팔지 않는다. 오

### 역경의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역풍을 뛰어넘는 사람들

직 그것을 위해 전력투구(全力投球)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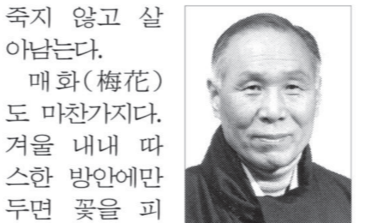
둘째는 시간관리를 잘 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 쉴 때도 그냥 쉬지 않는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생각한다. 존음(寸陰)을 아껴 쓴다. 셋째는 꾸준히 노력한다. 지구력(持久力)이 있다. 한번 시작하면 포기(拋棄)하지 않는다. 다 꾸준히 밟고 나간다. 한 우물을 판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우물을 판다. 넷째는 창의력(創意力)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좇는다. 솜성뉴(something new)한 것을 향해 돌진한다. 거기서 승부(勝負)가 나 있는 것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역풍(逆風)'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역풍을 타하지만 않는다. 역풍이 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方法)을 찾고 그것을 순풍(順風)으로 되돌릴 수 있는 지혜(智慧)를 찾는다. 그리고 노력한다. 남이 잠잘 때 그들의 발을 깊이 갈고 남이 희희낙락할 때 밤새워 바둑돌을 굴린다. 환경(環境)을 타하지 않고 남을 타

하지 않는다. 분심(忿心)을 잠재우고 내면(內面)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자기 성찰(省察)로 분심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인과(因果)로 귀결(歸結)시키고 모두의 것으로 승화(昇華)시켜나간다.

순풍(順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풍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순풍에 돛을 올리면 항해(航海)가 순조롭다. 반면 역풍에 돛을 올리면 낭패( 낭패)가 십상이다. 그러나 해야 한다. 역풍 속에서도 배를 띄워야 하고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존멸화(敵存滅禍)' 적거소과(敵去召禍)라는 말이 있다. 적의 존재는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사라짐은 곧 재앙을 부른다는 말이다. 천적(天敵) 속에서 살아남는 물고기와 흑한(鰐鰐)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바라보며 그 이치를 깨우쳐야 한다는 말이다.

물고기를 먼 거리까지 산 채로 이동시킬 때 그 용에 먹이와 산소만 공급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 통에 그 고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한 마리 함께 넣어야 한다. 그리하면 물고기는 자신의 적을 피하기 위해 계속 긴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이유로 물고기는 먼 거리를 이동하려다도



이규임  
인문교육진흥원 연구위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매화(梅花)도 마찬가지다. 겨울 내내 따스한 방안에만 두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 어느 날 찬바람이 부는 밤 밖으로 내보내면 그 때 꽃망울을 터뜨린다. 찬바람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하다는 점을 느끼고 빨리 씨앗을 맺어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처럼 동식물에게 위기는 존재의 원동력이 된다.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적의 존재는 재앙을 사라지게 하나 적의 사라짐은 곧 재앙을 부른다. 나에게 적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의식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나라에 적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의식해 평소에 대비하게 된다. 적이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의 자칫 나태(懶怠)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순경(順境)을 이기기는 역경(逆境)을 이기기보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00만 양병(養兵)의 통한(痛恨)을 되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운 이유이다.

### 초등생 기초질서 확립 동참

#### 정교초등학교 170명 서명운동 전개

포천시 가산면(면장 연제순)은 22일 정교초등학교 전교생 170명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학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봉규)와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조도행)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을 흥

보하고 환경사랑 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학생들에게 작은 관심과 실천이 쓰레기를 줄이고 오염된 환경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가산면은 22일 정교초등학교 전교생 170명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학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추모의 글

#### 가슴속에 묻은 당신

함께 고기 잡아 술 마시며 해돋이 논밭에 거름피고 트랙터로 쟁기 달아 내 밭 갈고 형 밭 갈자 약속은 허망하고 손과 발이 되어준 트랙터가 46년의 짧은 삶을 가져가더... 모질고 세찬 바람에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여저 하라고...깜짝하고 막막함에 몰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정신없이 혈관으로 수액이 들어가 반쪽 정신 들어 찢어지는 가슴으로 피눈물 토해내지.

목장지기들과의 스카프, 가까운 산행, 밭 갈며 마시던 막걸

리, 함께 했던 여행이 마지막 추억이 되고 무엇이 그리도 급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다.

다들 생애는 그렇게 말없이 떠나지는 말아다오. 역지로 갈라놓은 것을 아는지 희색빛 하늘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무자녀 이월 정미 삭이십일 병인.

친구들이 돌로 각을 만들고 문패를 세우며 흙 묻은 잔디로 지붕을 덮고 들어가 추억이 되어버린 당신, 강한 햇살에 목마르고 모진 비바람 추위를 이겨내면 새

봄에 올트는 파릇파릇한 잔디로 돌아나오 서로에게 뿌리가 되어 아이들과 아내를 우유 찌서 솜이끼 먹이며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방패가 될 것이니 목장 걱정일랑 벗어버리고 편히 잠드소서.

훗날 해맑은 웃음으로 가족들과 잔디에 앉아 술 한잔 기울이며 당신과 함께 한 기억들은 이곳 마저 잊고 싶지 않게 영원히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은미  
주부영(가사)인문교육진흥원